



母子曲玉 S=1/2
0 4cm

「魚形」에 가까운 印象을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六個의 「子玉」中 尾部の 一個를 除外한 五個의 「子玉」은 「母玉」

에서 突出했다거나 派生했다는 느낌보다도 그 自體로서 完

成된 「子玉」의 하나 하나가 所定의 位置

에 附着하였다는 느낌을 줄만치 自然스럽고 表面은 平滑하게 研磨되어 있다.

頭部에는 徑〇・二五cm 가량의 구멍을 兩側에서 맞닿았는데 兩側에서 進行된 구멍은 八割가량의 部位에서 若干어긋나게 合致되었다.

이 曲玉은 前記한 바와 같이 晋州에서 發見되었다는 것 以外에 그 出處가 未詳하나 全體의 形態와 彫琢이 洗練된 曲線美를 充分히 發揮한 完成品이라 보겠다.

形體上으로는 尾部の 「子玉」은 魚形에 가깝다고 보겠으나 頭部の 「子玉」이 過少하여 「眼孔」으로서의 表現意識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腹部和 背部の 「子玉」은 小曲玉으로서의 거의 完成된 形態를 갖추어서 魚類의 「지느러미」와는 距離가 멀어진 듯하다.

結局 그러고 보면 이 「母子曲玉」은 魚形說을 支持하는 要素와 反對하는 要素를 俱有하고 있는 셈이고 또 이것이 國內에서 生産된 것인지 渡來品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하나 興味있는 資料이므로 同人諸位의 參考에 供하는 바이다.

日本の 舊石器時代遺蹟

金 元 龍

近者 日本考古學雜誌 四七卷 第四號에 依하면 北九州 大分縣 丹生(니우)에서 舊石器時代 礫器가 發見되고 있다. 아직 仔細한 報告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豫報가 佐藤, 小林, 阪口 三氏에 依해서 發表되고 있다. (P. 293-311)

이 舊石器는 大分大學의 富來助教授가 처음 發見한 것이며 그것이 前期 舊石器時代의 것이 아닐까 하고 疑心한 富來氏는 이 事實을 今年 二月 學界에 報告하여 드디어 여러 學者들의 現地調査를 보게 된 것이다.

이 遺蹟은 九州 東北岸인 大分縣 北海邊郡 坂市町 大字 丹生の 大野川 邊 段丘臺地上에 있으며 七箇의 段丘中 第二段丘에서 採集된 것이다. 이 段丘는 砂礫層, 角礫層 위에 赤色土層이 있고 表面에는 火山灰層이 덮혀 있는 것인데 調査者들은 이 赤色土層을 第三間水期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遺物이 採集된 確實한 層位는 分明치 않으며 茶栽培를 위해 불도-자로 갈아 넣은 混亂된 層位에서 採集된 것이다.

採集된 遺物은 都合五〇箇의 石器뿐이며 그 中에는 二一개의 Chopper 와 五개의 Chopping tool 七개의 石核石器, 一七개의 不整形 剝片石器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礫의 一部를 裂落시켜 簡單한 刃部를 달았 것이며 아프리카의 Kafuan石器나 印度의 Soan 石器의 類

似한것 Chopping tool이라는 것은 우리 漢沙里나 淸湖里式의 橢圓形 磔製 雙器로서 磔에 橫位 打撃을 加해 넓고 얇은 剝片을 매번 石器다. 이 밖에는 다른 遺物은 없다.

이 遺物은 報告된 대로 믿으면 日本 最古의 遺蹟으로서 매우 重要하지만 아직 遺物出土層位가 確實치 않고 더구나 共存 動物遺骨이 絶無한 것이 遺憾이며 앞으로 좀더 仔細하고 確實한 發掘이 要望되는 바이다.

그런데 一〇月一六日 日本 朝日新聞의 記事를 보면 이 丹生遺蹟은 後同志社大學의 酒詰教授等 調査團이 發掘해 마르 剝片 石器等을 發見하였다고 하며 아울러 地層調査 結果 그것이 十萬年前의 下末吉層보다 古期임이 밝혀졌다고 되어 있다. 우리는 그 詳報가 速히 發表되기를 기다리는 바이다.

한편 같은 朝日新聞에 依하면 이 丹生遺蹟에서 멀지 않은 聖嶽(히지리 다케) 洞穴遺蹟에서는 새로이 別府大學의 賀川教授들에 依해 舊石器時代人의 後頭骨 一部와 같은 人骨(脛骨 및 撓骨)로 만든 尖器가 發見되었다고 한다. 從來 明石原人이라고 불리운 通稱 舊石器人의 遺骨이라는 것이 日本에서 發表되어 그것이 戰後關東地方의 岩宿遺蹟 등의 舊石器層의 發見과 함께 새로운 檢討를 받게 되었지만 頭骨로서는 이것이 처음이며 이 發見의 豫報가 確實하다면 日本에서의 舊石器文化存在는 이제 疑心할 바가 없게된 셈이며 그 石器가 널리 東南亞地區의 所謂 Clapper 文化圈에 屬하고 있는 것도 興味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일찌기 德永氏가 發表한 沖繩의 舊石器遺蹟도 이에 連關시켜 確實性이 있게 될런지 모른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舊石器文化 遺蹟이 發見된 것이 없지만 日本에서의 舊石器文化 確立은 우리에게 새로운 興味와 刺戟을 주는 바이다.

銅製木心金銀鍍 甲裝豆蓋形

崔 淳 雨

最近 昌寧出土라고 傳하는 馬具 一쌍을 包含한 興味있는 一連의 새 遺物을 調査할 機會가 있어서 우선 그중의 하나를 여기에 써두고자 한다. 이름붙이지 않으면 銅製木心金銀鍍甲裝豆蓋形이라고나 할까. 마치 豆의 蓋部와 흡사한 形態로 透彫된 銅製의 甲裝內部에 同形의 木心을 넣어서 만든 한쌍의 異形器이다. 木心은 現在 매우 收縮되어서 甲裝과 分離되어 있지만 甲裝위에 장식적으로 짙은 點線狀의 못 끝자욱이 아직도 이 木心に 歷然히 남아 있는 것을 보면 原來는 木心に 密着해서 이 金屬甲裝이 써워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蓋形의 꼭지部分은 徑約 五mm 정도의 靑銅 동쇠를 꾸부려서 環金狀의 頂部를 이루었고 이 高리쇠에서 二肢의 銅心이 左右로 등글게 갈라지면서 하트形을 이루고 이것이 다시 木心頂部에서 합쳐 이 木心を 垂直貫通했고 木心底에서 이 二肢의 銅心은 錨狀

